

## OG7) 꽃예술 소재로서 유망한 덩굴성 식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방식\*, 안영희, 강귀옥

중앙대학교 식물응용과학과

### 1. 서 론

덩굴성 식물은 자라면서 다른 식물이나 물체에 감거나 줄기가 길게 뻗어 자라는 식물을 일컫는다. 줄기와 잎에 가시나 털이 나있거나 덩굴손으로 퍼져 나가는 반연 식물과 줄기 전체로 감아 올라가는 전요식물도 있다. 이와 같은 덩굴성 식물들은 모양이 특이하고 그 질감 및 재질의 유연성 등으로 인해 꽃예술 소재는 물론 조경소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Ingels, 1997). 특히 생명력이 있는 덩굴 줄기와 소재를 연결시킨 작품은 자연스러움이 더 하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공간장식에 있어서는 화기에 심어 이동이 가능한 공간연출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아무리 건조한 덩굴도 물에 담그었다 다시 사용하면 잘 구부러져 장기간동안 보존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 가공방법을 사용하여 보존과 변형이 용이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한성이 없는 소재이다. 그러므로 덩굴성 식물을 이용하여 틀을 짜는 꽃다발, 꽃꽂이, 크란츠, 부케 등에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작은 소품디자인에서부터 넓은 실내 공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한 소재이다(Bang Sik, 2002, 土門, 2006).

최근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꽃예술 분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소재의 다양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꽃예술 표현이 가능한 개성있는 식물소재의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그러므로 근자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뿐만 아니라 열대 및 아열대 원산의 식물들도 수입되어 꽃예술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미적 가치에 대한 분석 및 체계가 연구되지 않아 다채로운 꽃예술 표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성있는 식물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덩굴성식물을 발굴하고 체계화하여 금후 수준 높은 꽃예술 작품 표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 2. 연구방법

현재 국내의 화훼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과거 유통된 적이 있는 약 556종의 화훼식물 소재 가운데 관상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등관속식물 가운데 덩굴성 식물 소재를 검색하였다. 덩굴성 식물 소재들은 감아올라가는 형, 덩굴손이 발달하는 형, 줄기가 번는 형, 흡지를 이용하는 형, 빨판을 이용하는 형 등으로 구분하고 그 관상가치를 분석 및 정리하였다.

### 3. 결 과

본 연구조사의 결과, 붉은 꽃의 관상가치가 높고 질감이 거칠고 진한갈색의 관상가치가

높은 수피를 지닌 임모메아 칸디킹(*Ipomoea kandyking*)을 비롯한 총 74종의 덩굴성 식물 소재들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 자생의 덩굴성 식물은 다래(*Actinidia arguta*)를 비롯하여 총 20종이 조사되었다. 외국식물은 열대 원산의 바우히니아 콕키아나(*Bauhinia kockiana*)를 비롯하여 총 54종이 구분되었다(Liamas, 2005).

또한 조사대상 덩굴성 식물 가운데 관상가치가 덩굴줄기 및 꽃의 관상가치가 높은 종은 알라만다 카타르티카(*Allamanda cathartica*)를 비롯한 총 24종으로 나타났으며 덩굴 줄기 및 열매의 관상가치가 높은 종은 아쿠탕굴라수세미(*Luffa acutangula*)를 비롯한 총 18종, 잎과 덩굴의 관상가치가 높은 종은 송악(*Hedera rhombea*)을 비롯한 총 21종으로 나타났다. 덩굴자체의 질감이나 색채 등으로 관상가치가 높은 종은 다래를 비롯하여 총 4종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아리스톨로히아 엘레간스(*Aristolochia elegans*) 등과 같이 덩굴 및 꽃, 열매, 잎의 복합적인 관상가치가 높은 덩굴성 식물 종도 총 7종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덩굴성 식물은 금후 단순한 꽃예술 소재로서 뿐만 아니라 에스펠리아, 퍼걸라 등의 조경용 소재로도 매우 유망한 식물소재라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Ingels J. E, 1997, Ornamental Horticulture. Delmar Co(U.S.A.).  
Bang Sik, 2002, Bridal Bouquet, 방식꽃예술원.  
방식, 2001, Florist 양식론, 방식꽃예술원.  
土門康男, 2006, Flower Design Introduction, 講談社(日本).  
Liamas, K. A, 2005, Tropical flowering plants, Timber press(U.K.).